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이해관계 그리고 지위

마리아 빅토리아 무리요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교수, 라틴아메리카연구소장

원제와 출처: María Victoria Murillo, "Democracia, intereses y estatus en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No. 282, julio-agosto de 2019, pp. 110-120.

핵심어: 민주주의, 경제, 지위, 이해관계, 라틴아메리카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에게 통치자를 선택하고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한다. 기예르모 오도넬에 따르면, 수직적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이 자격은 위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능력이다.¹⁾ 선거는 시민권의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시민권은 선거가 없을 때도 행진, 고발, 청구 그리고 다른 형태의 압력을 조직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조기 사임을 강요하거나 탄핵

1) G. O'Donnell: 《Democracia delegativa》 en *Journal of Democracy en Español* vol. 1, 7/2009.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킨 동원을 경험했다. 그러나 투표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에 필수 구성 요소이며, 이러한 이유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선거를 형성하는 요인들의 진화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 전에 개별 시민이 심사숙고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에 따라 그것들에 부여되는 중요도 또한 다르다. 이념, 정부의 성과, 정당과의 개인적 관계, 분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정당 정체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지니는 중요도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선거 간에도 달라지는데, 이는 정당들이 충족시켜야 하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발생시킨다.²⁾ 1980년대의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국가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의 투표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 경제 상황에 따른 투표, 소위 '돈지갑 투표(pocket book voting)'와도 관련되어 왔다.³⁾

라틴아메리카,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요인에 따른 투표가 대세인 가운데, 2018년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당선은 유권자의 지위가 선거의 결정 요인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요인들이 그의 승리에 기여했지만, 보우소나루로 연합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가 가지는 중요성처럼 선거 선호도 분석에서 나타난 성별과 인종에 따른 격차는 라틴아메리카 선거에 있어서 잠재적 변화에 대

2) 선거전에서 나타나는 투표 결정 요인과 동기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Ernesto Calvo y M.V. Murillo: *Non-Policy Politics: Richer Voters, Poorer Vot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lectoral Strategies*, Cambridge, 2019.

3)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요인에 따른 투표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M.V. Murillo y Giancarlo Visconti: 《Economic Performance and Incumbent Support in Latin America》 en *Electoral Studies* No 25, 2017.

한 경보를 올렸다.⁴⁾ 이번 선거 운동에서 보우소나루의 공약이 남성우월주의, 인종주의, 독재 정권과 상실된 질서의 회복에 대한 찬사로 특징지어 지면서 더욱 그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역내에서 브라질의 무게를 감안할 때, 라틴아메리카 선거는 분수령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글은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선거에서 결정 요인들은 무엇이었으며 그 요인들에 유권자의 지위를 포함시킨 결과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선거

이 지역은 일찍이 제3의 민주화 물결에 합류했다. 중앙아메리카의 동료들에 비해 냉전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던 남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외채 위기는 이 민주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경제 악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 속에서 태어난 민주주의는 거시 경제 위기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가 역경을 절묘하게 피한 칠레, 그리고 게릴라가 치안문제를 선거 아젠다의 중심이 되게 한 페루나 콜롬비아가 상대적으로 예외적일 수는 있지만,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결정적이 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앙아메리카와 경쟁적 권위주의가⁵⁾ 지배하던 멕시코는 10년 늦게 민주주의의 물결에 합류했다. 이들의 경우, 처음에는 내란의 종말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조직범죄와 관련해서, 치안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에 따른 투표가 그 국가들에서는 똑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4) Osvaldo do Amaral: 《Do baixo clero à Presidência: os determinantes do voto em Jair Bolsonaro em 2018》, 3/2019, mimeo.

5) 예로 다음을 참조. Steven Levitsky y Lucan A. Way : 《Elecciones sin democracia. El surgimiento del autoritarismo competitivo》 en *Estudios Políticos* No 24, 1-6/2004.

경제 위기, 특히 1998년과 2003년 사이 라틴아메리카에 영향을 미친 경기 침체에 출구를 제공하는 데에 민주주의 정부가 지닌 한계들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신자유주의로 전향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동의하지 않는 공공 정책에 반대할 선택권을 남기지 않았을 때 그러했다. 첫 번째 사례로, 투표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는 해체되었다. 이어서, 선거 공약의 혁신 요구를 다루는 새로운 옵션들이 나타났으며, 종종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아웃사이더들도 있었다. 아웃사이더들은 콜롬비아의 알바로 Uribe처럼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또는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처럼 경제적 복지에 대한 약속을 통해 연합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든 원자재 호황과 같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든 이들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선거는 책임성의 주요 메커니즘이고, 성과는 선거의 결과를 설명할 주요한 조건이었다. 재선은 이 아웃사이더들로 하여금 통치기간을 늘릴 수 있게 했고, 그들의 인기는, 오도넬의 예측대로, 행정부에 힘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두 가지 이 인물들 주변에서 발생된 양극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이 양극화는 브라질에서 리더십이 노동당을 능가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와 아르헨티나에서 정의당(페론당)을 능가하는 동시에 분열시킨 동맹을 만든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처럼 기존 정당 내에서 출현한 새로운 지도자들에게도 미쳤다.

2000년대 들어, 특히 남미에서 원자재 호황을 동반한 경제 성장은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감소를 가져 왔으며, 또한 여전히 부정적인 충격에 취약한 새로운 중산층의 출현을 초래했다. 노라 리스티그에 따르면, 좌파 정부의 원자재 수출 국가에서 불평등이 더 많이 감소했다.⁶⁾ 이들 국가들에서는 다른 형태의 불평등

을 줄이기 위한 권리의 확대도 있었다. 원주민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새로운 헌법과 사전 협의 과정, 아프리카계 후손들을 정치 및 교육 시스템에 포함시키려는 제도, 동성 결혼에 관한 법, 성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볼리비아 대통령이 지니는 원주민과 브라질 대통령이 지니는 노동자에 대한 상징성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다. 여성과 관련하여 성폭력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었고 많은 국가에서 입법부 쿼터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공공정책에 의해서보다는 노동시장의 여성화를 촉진시키는 출산을 하락에 의해 더 혜택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근의 추세를 재생산하는데, 이러한 정치, 사회적 변화는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는다 느끼는 사람들, 특히 남성, 백인 및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프리카계, 원주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작은 기회의 변화가 이들 그룹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성적 이데올로기”를 비난하고 합법적 낙태나 동성 결혼에 대한 접근의 자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시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방어와도 연관된 것으로 지위의 방어를 위한 동원력의 예다. 2018년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선거는 동성 결혼을 캠페인의 핵심으로 만든 법원 판결로 인한 양극화의 무게를 보여주었다. 여론의 분열은 하위권이던 복음주의 목회자 파브리시오 알바라도를 1차 투표에서 1/4 득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아프리카계

6) N. Lustig: 《Inequality in Latin America: Markets and Politics》, conferencia final de la 6a Conferencia Anual de la Red para el Estudio de la Economía Política de América Latina (repal), Tulane University, Nueva Orleans, 13/5/2019. 러스티그는 이러한 불평등의 감소는 통계 조사에서 측정되지 않는 최상위 1%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비기여 연금, 현금 이전 프로그램, 최저 임금 인상,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개선, 그리고 최고학력자들의 임금 프리미엄 축소를 제안한다. 다른 저자들은 또한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 통계학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이전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인 앵시 캠벨 바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2차 투표에서 패배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복음주의 투표는 2018년 브라질 선거의 핵심이었다. 1990년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당선에서 라틴아메리카 정치학은 당이 없는 아웃사이드를 위한 복음주의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발견한 것에 놀랐다. 하지만 브라질의 경우 그 과정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2003년에 복음주의 의회 전선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여러 정당의 입법자들이 모였다. 독실한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된 보수소나루에 대한 중요한 복음주의 교회의 지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를 유포할 네트워크를 제공했다.⁷⁾ 복음주의 교회는 사교의 공간 및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과 직접 연관된 물질적 이익처럼 영적 구원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매우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지가 와해되는 상황에서 핵심 자산이 된다.⁸⁾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의 정치적 지지는 브라질 복음주의자들이 노동당과 마리나 실바를 찍은 것에서 보듯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⁹⁾ 네트워크와 소위 '성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정당을 설립하려는 복음주의자들의 의도는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2018년 멕시코 대선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선거 연합에 속해있던 소규모 정당인 사회회합당조차도 정당 등록에 실패하고 소멸되었다. 신앙과 관련된 투표도 없고,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과 아웃사이드들의 등장이라는 상황에서 매력적이 되는 전통적인 가족이나 네트워크와 연관된 계급적 지위를 방어해 할 것 같은 민감성도

7) Ari Pedro Oro y Marcelo Tadvald: «Consideraciones sobre el campo evangélico brasileño» en *Nueva Sociedad* No 280, 1-2/2019, disponible en <www.nuso.org>.

8) Pablo Semán: «¿Quiénes son? ¿Por qué crecen? ¿En qué creen? Pentecostalismo y política en América Latina» en *Nueva Sociedad* No 280, 1-2/2019, disponible en <www.nuso.org>.

9) A.P. Oro y M. Tadvald: ob. cit.

없다.¹⁰⁾

경제 위기와 유권자들의 실망

경제 악화와 정당에 대한 실망은 현재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원자재 호황기가 끝난 2014년과 2016년 사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크게 감소했다.¹¹⁾ 또한 증가하는 치안 불안이 정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악화시켰고 부패 스캔들이 모든 제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이후로 수년 동안 힘을 잃어간 정권들은, 특히 부정적인 정체성들이 선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한 선거와 아웃사이더들의 출현을 직면했다. 반노동당주의(Antipetism)은 2018년 브라질 선거에서 핵심이었고, 반키르츠네르주의는 2015년 아르헨티나 선거에서 열쇠였으며 2019년 선거에서도 그러할 것이며, 또한 2017년 에콰도르 선거에서는 반코레이주의가 핵심이었다. 이 사례들은, 데이비드 새뮤얼스와 세사르 주코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선호로 설명할 수 없는 기존 노선들(즉, 노동당주의, 키르츠네르주의, 코레이주의)의 정치 수행 방법에 대한 반감에서 나왔다.¹²⁾ 이러한 부정적 정체성들은 20세기 당시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페론주의나 바르가스주의와 같은 포퓰리즘

10) José Pérez Guadalupe y Sebastian Grundberger (eds.): *Evangelicos y poder en América Latina*, Instituto de Estudios Social Cristianos/Konrad Adenauer Stiftung, Lima, 2018.

11) Mollie J. Cohen, Noam Lupu y Elizabeth J. Zechmeister (eds.): *The Political Culture of Democracy in the Americas, 2016/17: A Comparative Study of Democracy and Governance*, Usaid / lapop / Americas Barometer, 8/2017.

12) D. Samuels y C. Zucco: *Partisans, Antipartisans, and Nonpartisans: Vote Behavior in Brazil*, Cambridge up, Cambridge, 2018.

운동에 의해 생성된 정체성들을 연상케 했다.¹³⁾

유권자의 투표 행태가 급진적으로 잘 변화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한다. 2018년 브라질 선거에서는 2015년과 2016년의 급격한 GDP 하락을 감안할 때 경제적 요인에 의한 투표만이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선거의 주된 경쟁자,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시킨 부패 재판으로 얼룩진 선거전 동안 특히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크게 성장한 반노동당주의의 영향 또한 중요했다.¹⁴⁾ 하지만, 그 선거는 또한 보통 지위에 따른 투표 양상과 관련된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보수소나루에 대한 투표는 남성, 백인, 복음주의자,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았으며, 대도시와 남부와 남동부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¹⁵⁾ 다시 말해, 부패 스캔들뿐만 아니라 나쁜 경제 및 안보적 성과가 기존의 세 정당, 즉 노동당, 브라질 민주운동당, 그리고 중도우파인 브라질 사회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연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변수들이 성별, 종교, 그리고 인종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¹⁶⁾ 반면 성별, 종교, 인종은 성별 및 성적 위계에 관한 권리의 확대와 노동당의 아프리카계 후손들에 대한 정책적 포함에 대항하는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성,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상대적 지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러스티그가 지적한 중등 및 대학교육에 대한 보상이 하락한 것과 경제 호황기에

13) M.V. Murillo: «La historicidad del pueblo y los límites del populismo» en *Nueva Sociedad* No 274, 3-4/2018, disponible en <www.nuso.org>.

14) 이 선거에서의 반노동당주의에 대한 정보는 세사르 주코에게서 얻음.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룰라에 대한 유죄판결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2018년 대선에서 룰라의 후보자격 박탈과 대선 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참조. Naiara Galarraga Gortázar: «El descrédito del héroe anticorrupción» en *El País*, 16/6/2019.

15) O. do Amaral: ob. cit.

16) 복음주의자들 2018년 브라질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했다라면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 참조. J.L. Pérez Guadalupe: ob. cit., p. 74.

기존 중산층의 소득이 부유층이나 빈곤층의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대적 지위가 이 선거 퍼즐에서 중요한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¹⁷⁾

지위에 따른 투표의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 투표의 비이념적 결정 요인에 지위를 추가하는가? 고소득 국가에서의 지위별 투표에 관한 연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각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다. 이러한 분석들 중 일부는 자동화, 세계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직면한 개인이 인지하는 위협에 중점을 둔다. 중등교육을 받은 남성은 가정에서만큼 노동시장에서도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지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그룹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유럽에서는 남성들로 하여금 외국인혐오주의, 남성우월주의, 민족주의적인 극우(또는 포퓰리즘) 정당에 투표하도록 이끈다.¹⁸⁾ 미국의 경우,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인종적 다양성은 남성, 백인, 기독교인의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되었다. 세계화가 증가하는 상황,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선출 이후 사회적 위계질서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위협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와 관련이 있다.¹⁹⁾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식은 정치인들이 잃거나 위협받는 지위에 호소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17) N. Lustig: ob. cit.

18) 다음 참조, Noam Gidron y Peter Hall: 《The Politics of Social Status: Economic and Cultural Roots of the Populist Right》 e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68 No 51, 2017; y Bram Spruyt, Gil Keppens y Filip Van Droogenbroeck: 《Who Supports Populism and What Attracts People to It?》 e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9 No 2, 2016.

19) 다음 참조, Diana Mutz: 《Status Threat, Not Economic Hardship, Explains the 2016 Presidential Vote》 en *pnas* vol. 115 No 19, 2018.

예고하며 선거 운동을 하는 주요 영역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성과에 따른 투표가 항상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열쇠였으며, 국제적 여건의 영향이 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경기 상황에서 경제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²⁰⁾ 또한, 치안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는 조직범죄보다 정치적 갈등에 있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엄격함이 조직범죄나 정치 갈등 모두에 해결책이었을지 모르지만, 범죄적 폭력에 대한 이 정책의 실패는 중기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하는 정치인들에게 위협을 시사한다. 실제로, 젊은 나이브 부켈레가 부패를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에서 범죄적 폭력을 가려버리면서 기존의 두 정당을 밀어낸 최근 엘살바도르 선거는 정치인들이 그 위협을 인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인 부패 종식에 대한 약속은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치안 위기가 매우 심각한 또 한 국가인 과테말라의 2015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다. 아웃사이더인 지미 모랄레스가 부패를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후에 그의 친척이 부패 사건에 연루되면서 모랄레스는 유엔 과테말라 반면책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마지막에는 반부패 검사 델마 알다나가 2019년 대선 후보 등록이 가로막혔다.

유권자의 지위에 따른 투표 행태가 이러한 맥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장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그러했듯이, 선거 공약에서만이나 유권자의 요구에서부터도 지위의 부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경제 악화는 원자재 호황기 동안 사회적 지위를 높인 부문들, 특히 부정적 충격에 취약한 새로운 중산층을 위협한다. 교육에 투자한 중산층은 또한 학력이 노동 시장에서 제공하는 보상이 감소하는 것을 보았다. 빈곤층과의 격차는 좁혀졌고 소득이전 프

20) 다음 참조, Daniela Campello y C. Zucco: 《Presidential Success and the World Economy》 en *Journal of Politics* vol. 78 No 2, 2016.

로그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 최소한으로 제공된 사회지원망 같은 것도 부재하다. 경제 현상은 자동화 현상과는 다르지만 그 결과는 분노와 선거를 통한 그 분노의 표출 측면에서 볼 때 비슷할 수 있다. 이 가설이 유효하다면, 2014년부터 브라질에서 일어난 것 같이, 비수혜자들에 대한 사회지원 프로그램의 인기는 감소할 것이다.²¹⁾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는 지위의 재분배를 야기하는 새로운 도전을 암시한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이는 소득과 가정 내 관계 모두에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계 사람이 브라질 공립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교육의 공간을 두고 백인과의 경쟁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계질서를 수정하고 지위에 변화를 일으킨다. 동성 결혼은 결혼의 법적 인정 및 그 혜택과 관련하여 이성애자에게 부여된 독점을 끝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점적 가치는 위협을 받고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서 유지되어온 가정 내 관계도 위협 받는다. 지위 재분배의 직접적인 과정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지위와 관련된 관계는 상대적이고, 또한 특권적 지위가 감소한 개인이 대인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덜 위계적인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사회화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지위의 상승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²²⁾

상대적 지위의 하락은 결집할 동기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개인은 성취감

21) LAPOP 자료에 따르면,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는 2014년~2016년에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락했고, 빈곤층과 아프리카계 사이에서 높게 유지되었다. M.J. Cohen, N. Lupu y E.J. Zechmeister (eds.): ob. cit.

22) 예를 들어, 차별 철폐 조치를 위한 노력을 “다양성”으로 표현하는 의도는 새로운 그룹들을 포함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그룹들로 하여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삶이 더 나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다 상실감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²³⁾ 또한, 지위의 가치가 상대적인 격차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은 이를 제로섬 재분배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지위의 재분배는 소수를 위해서 해도 모두를 위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물질의 재분배와는 다르다. 지위의 재분배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정치적 공약 측면에서, 지위에 따른 투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표는 아래로의 소득 재분배 없이 동맹을 확대하고 대신 지위를 약속하는 것을 선호하는 우파들에게는 중요한 투표다.(이런 맥락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전통적인 위계질서가 위협받지 않는 과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매우 양극화되어 있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위에 따른 투표는 그것이 가진 제로섬적 특성 때문에 양극화를 악화시킨다. 이 양극화가 라틴아메리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른 원인에 의한 양극화와 겹치면 기존 정당들의 중대한 쇠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에서 양극화와 관련된 정당 선호도를 형성하는 분열의 심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2018년 브라질 선거에서 관찰한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점은 미국에서는 반대표가 대안 정당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동자주의와 반노동자주의 또는 키르츠네르주의와 반키르츠네르주의처럼 대체로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찬반으로 이루어진 정당 체제에서는, 결과가 양극화한 다원주의일 수 있다. 양극화한 다원주의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위에 한 가지 차원이 더해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당 체제를 안정화시키지도 그것의 유동성을 유지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

23) Amos Tversky y Daniel Kahneman: «Loss Aversion in Riskless Choice: A Reference-Dependent Model» e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4, 11/1991.

분투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지위로 인한 갈등은 정치 체제에 있어서 선호의 쏠림이 경제적 불황기에 효과적인 공공정책 동맹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불만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경제적 성과에 대한 민주주의적 약속들의 불이행이 아니라, 권리의 확대, 새로운 집단들의 포함, 그리고 정치적 통제를 넘어선 사회적 변화다. 결국, 더 깊은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들에 더욱 노출되고 더욱 많은 합법성의 문제들을 지닌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임태균 옮김